신의 반란

(요3:31-36)

31.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32.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33.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34.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니라
35.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신의 반란>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굳이 여호와하나님,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도 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아침에는 신(神)이라고 한 번 불러봅니다.
잘못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1장 1절의 말씀으로부터 3장 30절까지 해야 될 모든 내용을 신학적으로 함축해서 다 얘기한 것과 마찬가집니다.
이 요한복음 3장 안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모든 진리의 내용이 함축되어 있다고 해도 되고, 좁게 말하면 요한의 신학이 집약되어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분은 그러한 요한의 신학의 전반적 개요의 마지막 부분인 매듭을 짓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에서 요한의 생각이 아주 그림처럼 보여 지고 있어요.
요한은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를 머리에 그리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것은 땅에 속한 것을 말한다'
그리고 앞에서도 계속 '위로부터 거듭난다, 위로부터 태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와 아래의 세계를 뚜렷하게 대비시켜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위의 세계와 아래의 세계를 그리면 돼요.
위의 세계가 바로 하나님의 세계요 신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세계가 만물의 세계, 빛의 속도로 가도 끝이 없는 우주라고 해봤자 그것이 만물에 속하는 피조물의 세계요, 그 만물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계시는 대상은 인간입니다, 즉 인간의 세계입니다.
아래의 세계요, 만물의 세계이며 인간의 세계가 있고, 그 위에 신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있습니다.

이 두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혁명을 일으키십니다, 체제를 전복하시기 위한 반란을 일으키셨다는 얘깁니다.
요한의 이 오늘 본문이 그렇다는 얘기에요, 하나님의 반란을 지금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어떤 반란을 일으키셨는가?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첫 번째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신은 없어요.
유일한 참 신이 여호와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아버지이신 그분이 바로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른 신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사람들이 신이라고 부르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가상의 존재이고 거짓된 존재들이지만 하여간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우리가 지금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신들의 세계를 한정 짓고 있습니다.
신은 신의 세계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종교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만물들 틈에서 만물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들은 뭐 하는 분들입니까?
인간들의 생각 속에서 신들이 도대체 어떤 존재들이냐?
신들의 영역에 있으면서 인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내려다 볼 때, 어느 하나의 신이 있어서 그 신에게 기도를 하고 바라면, 인간들의 기도를 듣고 인간들이 원하는 바를 들어서 복을 내려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잘 이끌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신들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이 만문들의 세계 속에서 그냥 돈 벌고, 직장생활 하고, 결혼하고 열심히 살아가면 되는 것이고, 신들의 영역에 대한 관계에서는 신에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원하는 것들이 있고, 힘든 것들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고 간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의 세계와 인간들의 세계가 아래위로 있다고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의 세계에 머물러 계시면서 인간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신의 영역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그 영역을 넘어서 월담을 해서 인간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떤 일을 인간들에게 요구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여기서 체제전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의 반란이 꾀해진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에게 참 되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인치다'는 얘기는 봉투에 서류를 넣고 받아야 될 사람이 받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뜯어봐서는 안 되니까 그 봉투를 봉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사실을 확증해버린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은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마지막에 그 하나님의 참되심을 예수님의 증언을 듣고 인정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활이 달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참되시지만, 인정하면 우리는 살고, 안 하면 죽는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참되심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앞에 놓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체제전복이고 하나님의 반란이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참되다는 뜻은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이렇게 사전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이나 이치에 조금도 어긋남이 없다', '거짓이 없다',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뜻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수학적인 참됨, 논리적인 참됨이 아니라, 인격적인 의미의 참됨을 찾아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인격으로 다가서셔서 당신의 참되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뜻이냐 하면, 우리가 보통 '꿈이냐 생시냐'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요새 입시철인데 아들이 서울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복권을 샀는데 150억 로또에 당첨됩니다, '이게 꿈이냐 생시냐?'
여기서 생시가 바로 참이라는 겁니다, 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처럼 느껴지느냐, 막연하게 느껴지느냐, 아니면 '생시냐?' 할 때처럼 참으로써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하는 얘깁니다.
이 말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쉽습니다.

자, 하나님이 신의 영역에 계시고 인간은 나름대로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갈 때, 신과 인간의 관계는 내가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에 부딪히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그 신의 영역에 머물러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하게 장사가 어렵게 되었으니 장사가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 네가 참 힘들겠구나, 상황이 이러이러하게 되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웃과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어린이들에게도 후원도 하고, 이렇게 추운 날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연탄을 제공하는 연탄은행에도 기부하고, 이렇게 이웃을 사랑하면서 건실하고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의 참되심을 인정하라고 요구하시는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거 참~ 곤란해진 거예요.

‘하나님,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돈이 좋냐, 내가 좋냐?’ 하고 따지고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신의 영역에 계실 때, 이 땅에 내려오지 않으셨을 때는 돈과 하나님이 내 마음을 놓고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신의 영역에 계시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존재로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돈처럼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내 가족처럼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내 건강에 문제가 생겼거나 할 때처럼 실감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인간이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이 땅에 내려와 버리셨습니다.
내려오셔서 하신 일이 사사건건 따지고 물으십니다.
내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좋아, 건강이 좋아?’ 이렇게 따지고 묻습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 좀 신경을 쓰려고 하면, ‘가족이 좋냐, 내가 좋냐?’ 이러고 따지고 묻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뭘 좀 하려고 하면, ‘그렇게 자식이 좋냐? 그러면 나는?’ 이렇게 따지고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까지 사랑하며 귀하게 여겨서 그것들을 위해 마음 쓰고 애쓰며 살던 모든 삶의 체제가 다 전복이 돼버리고 뒤죽박죽 혼란스럽게 돼버리고 맙니다.
사사건건 다 개입하셔서 ‘그게 그렇게 좋아? 그럼 나는?’ 하고 따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마치 외국에 시부모님이 계실 때는 이 땅에 와서 취직해 있는 1.5세인 남편과 사는데, 필요할 때마다 돈 보내주시고, 좋다는 약 같은 것도 보내주시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셔서 같은 집에 머물고 있는 동안 사사건건 따지고 드시고, 개입하시고, 식사도 ‘나는 그것 싫다 딴 것 해달라’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신의 영역에 계시면 될 것을 무엇 때문에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렇게 사람을 괴롭히시느냐 이겁니다.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옛날에는 위에 계시면서 사업 잘되게 해주시면 되는 거였는데, 사업 잘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 땅에 내 앞에 바짝 다가오셔서 ‘나는? 나는?’ 하고 들이대시니까, 이게 바로 참되심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참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거짓에는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마음이 쓰이는 것이 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건강문제와 돈 문제, 그리고 하나님이 있으면 옛날에는 돈 문제와 건강문제만 전념해서 신경을 쓰면 되었는데, 하나님이 계시면서 '나한테는 마음 안 쓰냐? 나한테 먼저 마음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더 참이니까…'
왜 더 참이십니까?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세상 만물들의 틈에 끼어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보다 나중에 참이고 하나님보다 덜 참일 수밖에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실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내려오셔서 사사건건 따지시는 것이 '돈 때문에 걱정이냐? 돈을 내가 만들었는데, 내가 먼저 있었는데, 내가 더 먼저 참인데…'
'자식? 자식보다 내가 먼저 있었는데, 내가 더 먼저 있었던 참인데, 자식이 더 귀하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체제가 전복이 된다는 게 다른 뜻이 아니라, 신들의 반란이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가 귀중하게 여기며 살았던 모든 것들에게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노인네처럼 끼어 들어서 '나는? 나는?' 하고 계시니까.
그런데 참이라는 게 뭡니까?
'꿈이냐 생시냐'라는 이 경이로움의 경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달라고 하면 '돈이 좋아, 내가 좋아?' 하시고, 자식 좀 잘되게 해달라고 하면 '자식이 좋아, 내가 좋아?' 물어보시고, 내 건강 좀 챙기려고 하면 '건강이 좋냐, 내가 좋냐?' 물어보셔서 사사건건 귀찮은 것 같아도, 어쩔 수 없어서라도 그 하나님을 먼저 보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쓰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참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real이라는 거예요, real.
하나님이 이름뿐이 아니라 진짜 real이고 우선적인 real이에요, reality, 우선적인 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쓰고 보니까, 이게 꿈입니까, 생시입니까?
요한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 돈보다 건강보다 자식보다 가족보다 내 이 세상의 어떤 삶

보다도 먼저 실제로서 참으로 인정하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 너무너무 기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주님도 하나님이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스스로를 드러내시면 될 텐데, 주님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를 보시고 들으시면서 그 보시고 들으시는 것을 그대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을 그냥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나타내실 수도 있으실 텐데 굳이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인간으로만 사셨고 자신을 인간으로 제한을 해버리셨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신의 반란이에요.
신이시면서 왜 인간으로 제한해버리십니까?
인간으로 제한하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당신이 파이프가 되셔서 우리의 세상 안으로 끌어들여 오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들으시면서 말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들어오시도록 하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인간인 우리의 삶을 정해주시느라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깁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신도 하나님이시니까 당신 자신을 다이렉트로 우리한테 제시하셔도 되는데, 당신은 당신 자신을 인간으로 제한해버리시고, 그리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계획을 흘려보내시면서 하나님의 인격이 우리 앞에 나타나게 해주셨다는 얘깁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제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옮겨오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들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파이프가 되어서 천국이 우리를 통해 이 땅으로 흘러들어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면 '꿈이냐 생시냐'라고 생각하는 그 참, 진짜 참을 우리 마음이 접하게 되면서 우리가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는 경탄의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늘을 끌어들이는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예를 들어, '하나님, 사업 잘되게 해주세요!'라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 내 앞에 주입이 되면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자마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영이신 하나님아버지가 우리 앞으로 오시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나타난 일이 그거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마음

에 느껴질 때까지.
그래야 하나님을 참으로 인정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주님에게서 일어난 것과 마찬가지의 천국이 주입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모든 자기의 신학의 개요를 이 본문에서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두 개의 세계가 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늘을 끌어들이는 이 땅에 주입시키는 파이프라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떤 이 세상의 일들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꼭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나타나셔서 '내가 참인 것을 인정하라'고 하신다.
그래서 돈과 가족과 건강과 성공과 비전과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마음을 쓸 때,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내가 파이프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주입되어지는 그러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러므로 사업장에서 기도하게 될 때, 주님을 먼저 기억하세요.
그러면 '꿈이냐 생시냐'라고 하는 경험을 하나님을 통해서 하게 될 것이고, 그 사업장에 하나님이 주입되실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을 먼저 생각하시면, 바로 주님을 통하여 내 앞에 오신 하나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시고, '꿈이냐 생시냐'라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파이프라인이 되어서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이 흘러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이 자식의 삶에 주입되어지는 그런 삶이 또한 이루어진다는 얘깁니다.

신들의 반란,
돈이 좋냐, 내가 좋냐?
자식이 좋냐, 내가 좋냐?
건강이 좋냐, 내가 좋냐?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뒤로 물러나게 하고 무조건 당신이 최고로 앞에서 나의 좋아하는 대상이 되기를 원하시는 이 체제전복을 통해서 우리는 '꿈이냐 생시냐'라는 말을 날마다 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얘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하나님의 반란, 하나님의 혁명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체계가 전복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을 참되신 분으로 인정하게 됨을 통하여 '이게 꿈이냐 생시냐'하는 감탄을 날마다 반복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